



나가모토 겐지씨

1959년 9월 1일생

1970년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음
태아성 미나마타병환자.

심신장애자가 작업소에 다닐 수 있는 원호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작업소 '햇 하우스'에서 근무. 미나마타병 환자나 장애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길바라고, 밝은 도시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체험담들을 이야기함.

2002년 1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시 묘진초 재주

제가 태어난 1959년당시, 할머니와 양친, 누나 둘 이렇게 저희 가족은 6명에서 생활했습니다.

집은 바다부근에 있고, 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낚시공장에서 일하면서 어업을 해서 가족들에게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장남이라서 모두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걷을기만 했었고, 목을 가누는 것도 늦었고, 걷는 것도 4살이 되어서야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저를 업고 병원에 갔었지만, 어머니등에 업혀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병원가기 싫어'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미나마타병이라서, 또 신체가 자유스럽지 못한 이유로 여러가지 차별을 받아, 힘들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원인기업인 낚시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저의 아버지도 낚시에서 근무하였고, 지금도 미나마타 낚시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아이들이 몇몇해질 수 있게 ,낚시공장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나마타병의 증언인으로 된 것은,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괴로운 경험을 겪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나마타병의 비참함을 전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이지만, 그외에, 미나마타병환자를 포함한 장애자들의 마음을 전해, 조금이라도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 편견을 없앴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장애자들과 교류했으면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휠체어를 밀어주고, 눈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냥한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귀중하게 간직했으면 합니다.